

#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개화기 이후의 복식을 중심으로—

배화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조교수 황 의 숙

## 目 次

### I. 서 론

#### II. 전통한복의 양식 변화

1. 제1기(개화기 이후 : 1984년~1945년)
2. 제2기(광복 이후 : 1946년~1965년)
3. 제3기(전통한복의 정착기 : 1966년~1975년)
4. 제4기(전통한복의 성숙기 : 1976년~1985년)
5. 제5기(전통한복의 안정기 : 1986년~1995년 현재)

#### 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어느 한 민족의 고유한 복식은 그 민족이 지닌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조건과 민족성, 시대적 환경 등의 주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전통복식은 그 민족의 사회제도, 관습, 전통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복식으로 자리 잡아 온 전통복식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각 시대의 사회적 특성에 따라 독특한 양식을 지니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조선 말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문물이 유입됨에 따라 전통적인 의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1945년 광복 이후에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겪고 세계 각국과 문화적, 경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호교류, 전파, 모방이 이루

어짐에 따라 점차 그 고유성이 상실되고 획일화되어 복식의 양식, 색채, 문양, 직물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전통복식의 변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성, 의생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전통복식변화의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전통복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의 전통복식의 변화과정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전통적, 현대적인 요소와 연결하여 조사,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근대까지의 전통복식의 변화과정이 1) 출토품, 소장품, 고서적을 통하여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2)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복식으로부터 그 시대의 복식을 유추할 수 있으며, 3) 전통복식 중 많은 부분이 궁중복식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변화과정의 이해가 전체적인 전통복식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현대에서 전통복식의 변화는 1) 그 변화과정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분석하기 어렵고, 2) 신문, 잡지, 화보 등의 자료만 있을 뿐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소장품 및 문헌자료가 크게 부족하며, 3) 전통복식이 궁중복식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여성들이 일상복이 아닌 예복으로 많이 착용하는 치마, 저고리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전통복식의 변화과정을 시대적, 사회적 변동요인과 연결하고, 전통복식 디자인, 색채, 직물, 문양 등의 변화과정을 조사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통복식을 재인식함은 물론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전통복식문화의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시대별로, 혹은 변화요인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통적인 요소가 변질되거나 혹은 아직도 옛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화기 이후 개방한복과 예복으로 정착되고 발전하였던 한복을 포함하는 현대 전통한복의 변화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전통한복이 일상복에서 예복으로서의 역할이 커져 나가게 됨에 따라 서양의복과 나란히 할 수 있는 한복 양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미래의 전통복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복전문지, 화보, 여성잡지, 신문 등의 자료들은 물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과 관계자료들을 정리하여 시대적, 사회적 변화요인들에 관한 문헌자료와 함께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전통복식의 양식이 개화기 이후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현대에 이르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시대별로 살펴 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여성 전

통복식의 양식 변화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각 시대가 갖는 사회적인 배경이 전통복식의 양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재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옷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서양복식이 일반화된 현대에 전통복식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복식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하고,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알고 보완, 정립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복식미를 재발견하고 우리 옷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을 계기로 전통복식의 미에 대해 바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옛 것의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닌, 우리의 독자적이고 자랑스러운 민족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21세기 전통복식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개화기 이후 전통한복의 양식 변화

한 민족의 전통복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생활문화인 신앙, 관습, 풍속 등의 사회적인 조건과 기후, 풍토 등의 자연적인 조건을 수용해야 하므로 전통복식에는 민족의 생활사가 그 속에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고대 국가가 형성된 삼국시대부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양분되는 신분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복식도 지배계층은 궁중예복을, 일반여성들은 저고리와 치마로 이루어진 일상복식을 착용하는 이중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 말 문호 개방과 함께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체제가 크게 변화되면서 유교적인 구습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복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개화기 이후 궁중예복은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라지고, 한국여성이면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저고리와 치마로 대표되는 '전통복식'을 '전통한복'이라는 용어로 대신 표현하고자 한다.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우

리 민족의 전통적인 복식은 깃, 고름, 섶, 동정, 결막이 등의 세부적인 요소를 다 갖추었을 때 전통적인 저고리라고 할 수 있으며, 허리말기와 끈이 달려있고 자락이 트여 있는 것을 전통적인 치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을 모두 갖춘 복식이 형성된 시기는 조선시대로 보는데, 이는 고려말까지는 깃, 고름, 섶, 결막이, 동정 등을 완전히 갖춘 저고리의 유물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조선시대의 유물부터는 현재의 저고리와 기본적인 구성이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구성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유(襦)와 상(裳)은 조선시대의 치마 저고리와는 상당한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삼국시대 복식의 이색선(異色襟)이 없어졌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부활되어 깃 또는 삼회장이나 반회장으로 변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한복이 개화기 이후 사회적, 시대적인 요인에 따라 현대에 이르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였다. 즉 개화기, 한일합방, 일제시대, 광복, 6.25전쟁 등 혼란기를 거친 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1960년대 후반부터 전통한복이 예복으로서 정착, 안정되는 과정을 각 시대별로 가지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제1기(개화기 이후 : 1884년~1945년), 제2기(광복 이후 : 1946년~1965년), 제3기(전통한복의 정착기 : 1966년~1975년), 제4기(전통한복의 성숙기 : 1976년~1985년), 제5기(전통한복의 안정기 : 1986년~1995년 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1. 제1기(개화기 이후 : 1884년~1945년)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구미 세력의 동양 진출에 따라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1884년에는 개화파에 의해 조선의 낡은 체제를 버리고 근대국가체제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갑신정변

이 일어났다. 이 갑신정변은 일부 지식층에 의해 주도된 개혁이었으며, 실패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개화가 시작되었다. 개화는 정치,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복식문화에도 일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하였으며,<sup>1)</sup> 이 개화기 복식의 양식의 특징은 한복의 간소화와 양복의 착용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sup>2)</sup>

동학의 영향을 받은 정치개혁과 현실개혁운동은 사회적인 성격을 띠어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주장하게 되었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래됨으로써 여성들의 의식개혁, 교육확대,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여성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한복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하면서도 간편해진 새로운 복식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실시된 선교활동은 여성들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신여성들과 전도부인들은 단발머리를 하고 양복에 구두를 착용하였다. 더우기 각 신문매체를 통해 1900년대 한복의 단점



<사진 1> 개화기 여성의 두루마기 착용 모습. (『승의 80년사』)

1) 이승희 :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1,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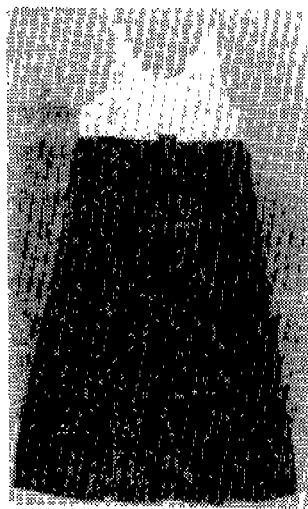
2) 유희경 :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628.

을 지적하고 개량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져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학생들과 신여성들은 <사진 1>과 같이 주로 남성들이 착용하였던 두루마기를 방한복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신여성들은 1900년경부터, 그리고 이화학당, 연동학교(정신여학교의 전신), 배화학교의 여학생들은 1910년경부터 여성들의 인체 노출을 은폐시키기 위해 착용되었던 쓰개 치마와 장옷을 착용하지 않았다.<sup>3)</sup> 그러나 일반여성들은 한복착용시 머리를 쪽지거나 땀기를 드렸기 때문에 신여성, 여학생, 전도부인들의 새로운 복식은 일반여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여학생들 사이에 항일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양복의 착용이 주춤해지고 한복의 착용이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의 한복은 여성운동과 양복의 보급으로 길이가 짧은 저고리에서 길이가 긴 저고리로 변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일반여성들과 여학생들이 착용한 저고리는 <사진 2>에서 보듯이 길이가 20cm 전후로 극히 짧고 진동도 16~22cm로 꼭 끼는 형태에서 가슴과 겨드랑이를 가슴띠로 둘러 동여매는 독특한 형태였다. 대부분의 일반여성들은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착용하였으나, 신여성, 여학생, 전도부인들은 길이, 진동, 배래, 수구 등이 넉넉해진 저



<사진 2> 1900년대 여학생의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유수경)



<사진 3> 1900년대 이화학당의 어깨허리가 달린 짧은 통치마. (『韓國服飾圖鑑 III』, 한국방송사업단)

고리에 당시로는 혁명적인 어깨허리를 단 짧은 통치마를 널리 착용하였다. <사진 3>은 1900년대 이화학당 여학생이 착용하였던 치마로서, 어깨허리가 달리고, 발목이 노출될 정도로 짧은 통치마를 보여 준다. 1910년 한성 여학교에서는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교복으로 제정하였고, 이 짧은 통치마는 허리 주름의 폭을 크게 잡아 입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밑단을 한단 또는 두단으로 줄여 입거나 선을 넣어서 각 학교의 표식을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여학교의 교복의 형태와 개정된 내용을 연대별로 <표 1>에 나타내었다.

이처럼 신여성, 여학생들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개량된 짧은 검정 통치마와 긴 저고리는 일반여성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한복의 개량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중화되었으며, 신여성, 여학생들은 일반여성들의 복식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sup>4)</sup> 한편, 양복은 선구적인 지식인들이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근대화의 상징으로 착용되어졌을 뿐, 일반여성복식에는 큰 영향

3) 김영삼 : 『정신 75년사』, 계문출판사, 1962, p.136.

4) 정세화 : “한국근대여성교육”, 『한국여성사 I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p.305.

〈표 1〉 각 여학교의 교복 개정

교명	연 도	개 정 내 용	형태	비 고
숙명	1907	자주빛 사이지로 만든 영국 귀족식 교복 (사진 13 참조)	양복	1906년 개교당시는 자유로이 한복착용
	1910~1930	동복 : 자주빛 치마, 저고리 하복 : 자주빛 치마, 흰 저고리	한복	겨울 : 김정계통 두루마기 착용 행사시 : 계절과는 무관하게 자주 치마, 흰 저고리, 자주댕기 착용
	1931~1945	동복 : 감색 세일러복(깃에 백선 3개) 하복 : 둥근 깃의 흰 부라우스 감색 점퍼 스커트	양복	동복 : 감색 나사모자(자주 리본), 자주스카프(행사시:흰스카프), 검정 스타킹 하복 : 백색 밀짚모자(자주 리본), 흰 스타킹
	1946 이후	동복 : 더블식감색상의, 몸빼바지 춘·추복 : 흰색상의 (Belt)	양복	가을과 겨울 사이는 바지대신 4폭 플레이어 스커트 착용
이화	1986~1990	다홍빛 치마. 저고리 동복 : 검정 치마, 자주 저고리 하복 : 검정 치마, 흰 저고리	한복	교색인 백색을 중심으로 분홍, 자주, 연두, 옥색 저고리를 번갈아 사용
	1920~1938	어깨허리를 단 짧은 통치마와 긴 저고리 (사진 15 참조)	한복	저고리는 백색, 흑, 자주, 하늘, 살색이 사용되고 치마는 흑색 사틴이 사용됨. 상하 동색이 유행.
	1939	검정 타이트 스커트, 흰 부라우스 스포츠 칼라의 더블 상의	양복	이화여전 교복 제정
배화	1898~1930	교복이 따로 없고 동복 : 시양복에 염색한 치마, 저고리 여름 : 모시치마, 저고리	한복	학당에서 침모를 두고 철에 따라 옷을 제공
	1930~1938	동복 : 검정 치마, 저고리 하복 : 검정치마, 흰저고리	한복	치마 : 발등, 무릎 사이의 G 길이
	1938~1954	동복 : 감색 주름치마, 감색 세일 러복 상의 (깃에 백색선 4개) 하복 : 감색 주름치마, 흰색 세일러복	양복	동복 : 흰색 스카프 하복 : 감색 스카프
	1954~이후	동복 : 감색 플레이어 스커트, 윙칼라 달린 감색 상의 하복 : 감색 플레이어 스커트, 흰 부라우스	양복	동복 : 흰색 칼라를 덧댄다.

을 미치지 못하였고, 단지 치마 저고리를 개량하는 데 필요한 표본으로 적용되었다.

1930년대 초반의 여성복식은 저고리 길이가 길고, 소매가 짧고, 주름 스커트처럼 통치마 주름을 넓게 잡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복식은 단발머리와 하이힐이 함께 착용됨으로써 새로운 복식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도시 신여성들의 양복과 지방 일반여성들의 한복이 혼용되

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한복 위에 두루마기 대신 코트를 입기도 하고, 통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전통적인 속옷이 셔츠와 팬티로 대응되었고, 그 위에 어깨허리가 달린 속치마를 착용하는 등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서양문화에서 추구하는 합리주의 정신이 우리나라 여성복식에 파급되면서 신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여성의 전통복식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개량되어야 한다는



〈사진 4〉 1930년대에 착용된 치마 저고리. (『한국의 복식』, 백영자)

‘여성의복개량안’<sup>5)</sup> 매스컴을 통해 제안되었다. 이 여성의복개량안에 영향을 받아 1930년대 일반 여성의 한복은 저고리 옆길이가 13~14cm나 되고, 진동, 배래, 수구가 넉넉해지면서 완만했던 배래선이 뚜렷한 곡선을 이루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치마 길이는 약간 짧아지게 되었다. 그 예로 이 시

대에 착용되었던 치마 저고리를 〈사진 4〉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1937년부터 일제의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탄압이 심해지자 전시 체제에 맞게 공무원, 일반인, 학생의 표준복이 제정되었으며, 여성복식도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 5-A~D〉는 1940년대에 많이 착용되었던 저고리들이며, 저고리의 기본구성은 그대로이지만 저고리 길이, 깃, 쇄, 동정 등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5-A, B〉를 보면, 저고리의 길이는 1930년경의 것보다 더욱 길어져서 가슴과 허리의 중간선까지 오는 반면에, 소매 길이가 짧아졌으며, 고름의 형태도 좁고 길게 변화하였다. 또한 〈사진 5-C, D〉에서 보듯이 깃, 동정, 쇄이 넓고 길어지고, 진동은 넓어져 활동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사진 5-A〉의 저고리는 옷고름 대신 단추가 사용된 것이, 그리고 〈사진 5-D〉의 저고리는 앞치짐을 많이 쓴 것이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세계대전<sup>6)</sup>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여성들에게 일상복으로 간단복이 보급되고,<sup>6)</sup> 일본여성의 작업복인 몸빼가



5) 『매일신보』, 1938년 3월 8일, 1938년 7월 10일, 1939년 1월 24일, 1943년 8월 19일, 1943년 8월 23일, 1944년 8월 16일.

6) 기본형의 원피스



〈사진 5〉 1940년대에 착용된 저고리. (A) 고름 대신 단추를 달은 저고리 (정은기 소장), (B) 좁고 긴 고름이 달린 저고리 (황순자 소장), (C) 깃과 동정이 넓은 저고리 (필자 소장), (D) 앞치짐이 많은 저고리 (박영순 소장).

일상복화되었다. 1940년에는 국민복이 제정되었으며, 후생성 산하 부인표준복연구회에서 기능성을 강조한 두 가지 형의 부인표준복을 정하였는데 (1942년), 한복과 그 모습이 비슷하였다.<sup>7)</sup>

이상과 같은 개화기 이후 1910년대부터 여학생과 신여성들이 많이 착용하였던 짧은 통치마와 긴 저고리로 이루어진 개량한복의 양식은 이 시기 복식변화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 개량한복은 처음에는 여학생과 신여성들만이 착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널리 착용되었는데, 이는 단지 착용하기 편리하였던 점 이외에도 기존 신분제도의 붕괴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따라 신여성들의 상징이었던 개량한복을 착용함으로써 억눌렸던 계급사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개량한복이 일반여성들까지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당시의 모든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착용된 것은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제2기(광복 이후 : 1946년~1965년)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변화속에서도 경제적인 회복을 피하여 점차 질서를 잡아갔지만, 광복 당시의 공업시설은 일본의 철수에 따라 대부분 쓸모 없게 되었고, 한국인 소유의 공장도 기계류, 생산재 등을 일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거의 가동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주민주국가의 확립과 경제산업의 부흥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의 노력으로 토지를 개혁하고 미국의 원조를 생산공장의 재가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자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광복적후 혼란했던 우리나라는 사회·정치·경제·문화적으로 점차 질서를 잡아갔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또다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혼란기를 체험하면서 미국문화 등 새로운 외래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구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원조는 유교적이던 한국인의 의식주 문화에도

7) 『매일신보』, 1942년 6월 13일.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서구의 합리적인 물질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 전통적인 유교관, 일제의 가치관, 서구적 가치관이 서로 대립하고 동화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의식구조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였다.<sup>8)</sup>

이와 같이 광복 이후 경제적 궁핍과 문화적, 정치적 혼란 속에 있던 우리나라의 복식문화는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여성들은 일본식 몸빼와 간단복을 벗고 다시 재래식 한복이나 개량한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반적인 저고리 형태는 광복이전의 1940년대의 저고리 형태(〈사진 5-A~D〉)와 비슷하여 저고리 길이가 길고 소매는 짧으며, 진동은 넓어져 활동적이었으며, 깃과 동정이 넓어지고 고름도 길어졌다.<sup>9)</sup> 이미 양복이 일상화된 시기여서 개량한복은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변형을 시킨 것, 기본형 자체를 변형하여 양복화시킨 것, 양복에 한복을 도입시킨 것 등 여러 형태가 제시되었다.<sup>10)</sup>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의복(衣料)이 크게 부족하여 대부분의 일반여성들은 의복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쓸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이 우선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입고 생활하는 분위기였다. 이 시기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구조물자와 밀수품을 통해 유입된 양복은 서구의 복식문화를 바르게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복과 함께 착용되어 한복의 개량은 물론 전통복식문화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1954년 최초로 패션쇼가 열리고 여성잡지의 창간과 더불어 한국여성들의 양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양복착용이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한복과 양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착용되는 상황

이 되었는데, 젊은 층은 양복을 무분별하게 모방하여 착용하였고, 중년층에서는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서구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한복도 생활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변화하였는데,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가 좁아졌으며, 깃, 동정, 섶이 넓고 길고 〈사진 5-D〉처럼 앞쳐짐을 많이 주기도 하였다. 특히 깃 넓이와 동정 넓이는 개화기 이후 가장 넓었으며, 깃을 바르게 여미고 치마 길이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져 치마 저고리의 비율이 3:1 정도로 되었다.<sup>11)</sup> 이에 비해 여학생들의 저고리는 길이가 약간 짧아졌고, 치마는 무릎길이까지 오는 주름잡힌 통치마가 일반적이었다. 저고리의 색으로는 흰색, 연한 미색, 분홍색이, 치마의 색으로는 검정, 자주, 수박색, 감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1960년 초기의 저고리는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길이, 품 등이 넉넉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저고리 길이, 옆선길이, 깃너비 등 각 부위가 줄어들면서 현재 저고리의 형태와 비슷하게 되었다.

이 시기 한복에 사용되는 직물들을 살펴보면, 1953년 나이론이 등장하여 보급됨에 따라 한국여성들의 의생활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조선견직에서는 조건하, 모본단, 유똥, 호박단, 사틴의 직물을 다양하게 생산하였다.<sup>12)</sup> 가장 고급직물으로는 본견, 유똥, 빌로드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나 한복감으로 사용되었고, 가격이 비싼 이유로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농촌에서는 여전히 길쌈을 해 자가생산한 광복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50년대말경부터는 신생활운동이 전개되어

8) 김연선: "광복 이후의 여자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20년부터 1969년까지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37.

9)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8, p.479.

10) 남윤숙: "한국 현대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55.

11)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8, p.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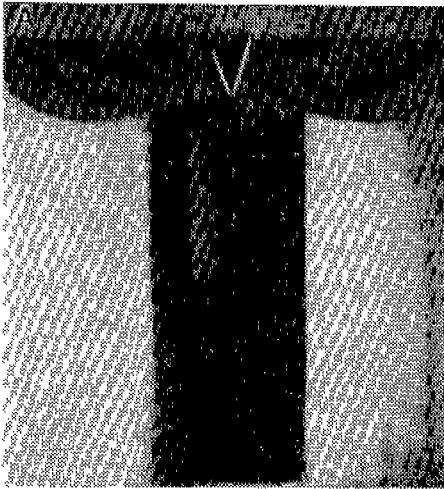
12) 차용희: "일본 근대복식과 우리 복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2.





〈사진 6〉 1955년도에 제정된 신생활복. (『사진으로 보는 광복 35년, 下』)

‘국민생활복’, ‘새생활복’, ‘국민복’과 같은 경제적 이면서도 활동적인 일상복이 나타났다. 특히 1961년 5.16 이후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한 경제발전계획이 추진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건설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목표 아래 신생활운동이 적극 장려되었다. 〈사진 6〉은 1955년 정부가 신생활운동의 일환으로 제정한 신생활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신생활복은 한복이 아닌 양복으로 이의 착용이 권장됨과 동시에, 1949년부터 1961년까지 국민복식생활 감소화의 일환으로 한복개량운동이 계속되었



〈사진 7〉 1960년대 궁중복식을 응용한 파티복. (A) 저고리, (B) 치마 저고리 앞면, (C) 치마 저고리 뒷면.

다. 1958년 12월 대학생 생활미전에서 면으로 된 작업복과 합성섬유로 된 농어촌 개량한복이 발표되었으며,<sup>13)</sup> <사진 7>에서 볼 수 있는 1950년대 후반에 개발된 소매가 짧은 반소매적삼은 초기에는 전통적인 적삼형태에서 소매만 짧아진 형태였다가 1960년대초부터 관복형태의 깃으로 변형시켜 김활란 박사<sup>14)</sup>를 비롯한 교육계 지도자와 여대생들 사이에서 농촌봉사활동시에 널리 착용되기 시작하여 전통한복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5)</sup> 또한 실용적인 한복의 개량운동의 일환으로 1960년 12월에는 한국디자인협회 주최로 신생활디자인쇼가 개최되어 한복과 양복이 절충된 개량 두루마기, 흠웨어 등이 선 보였다.<sup>16)</sup>

이러한 한복개량의 목적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한복을 착용하자는 것으로 1960년대초에는 <도 1-A, B>에서 볼 수 있듯이 저고리에는 고름을

짧게 하여 리본 모양으로 매거나, 또는 부로우치, 단추로 대신하게 하고, 치마는 아래단은 넓게 재단하여 플레어 스커트형이 되도록 한복의 형태를 변형하기도 하였다. 1963년 한국과 일본에서 최초의 한복패션쇼인 '한일친선패션쇼'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도 1-B>의 반소매의 짧은 저고리와 통치마를 변형시킨 한복으로부터 궁중복식,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등을 부분적으로 변형시킨 새로운 형태의 파티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개량한복이 발표되었다. <사진 7>은 궁중복식을 응용한 파티복으로, 앞도련은 저고리선을 사용하고 뒷도련은 도포의 뒷자락을 연상하게 하는 트임이 있는 긴 자락을 만들어 궁중예복인 원삼을 착용한듯한 모습을 나타내 주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또한 깃과 고름을 없애고 단추나 리본으로 여민 개량 두루마기(<도 2>)와 개량 혼례복(<도 3>) 등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개량한복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여성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



<도 1> 1960년대에 디자인된 개량한복.  
(A) 플레어 스커트와 개량된 저고리, (B) 주름치마와 볼레로식 저고리. (『한일친선패션쇼』)



<도 2> 1960년대에 디자인된 단추로 여민 개량 두루마기. (『한일친선패션쇼』)

13) 『여원』, “여대생들이 구상한 농어촌 개량복”, 1959.2.  
14) 김활란(1899~1970), 여류교육가, 한국 최초의 여자박사이며,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음.  
15) 당시 반소매 적삼을 디자인한 유희경 교수와의談, 1995.3.12.  
16) 한정미: “국내 패션쇼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109.



〈도 3〉 1960년대 궁중예복을 응용하여 개량된 혼례복.  
(『한일친선패션쇼』)

던 과도기적 형태였으며, 한복 고유의 품위와 전통미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널리 착용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양복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쾌하고 능률적이며 경제적으로 일상복화하여 착용하고, 전통한복은 전통성을 유지시키면서 예복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광복 이후에는 서구의 복식문화가 올바르게 수용되지 못한 채 한복과 양복이 혼용되었고, 양복착용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식형태에 큰 상관없이 몸에 맞기만 하면 그대로 착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생활이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한복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양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과 한복의 개량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복의 개량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예복이 아닌 실용복으로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복식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여성의 주된 전통복식의 양식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젊은 층에서는 한복 대신 양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혁과 서양복식의 유입에 의해 전통복식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 적응되면서 새로운 양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제3기(전통한복의 정착기 : 1966년~1975년)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고 경제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5.16 혁명 이후 한국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화현상이 생겨났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혁을 겪으면서 도시인 특유의 생활양상의 등장,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은 합리주의, 개인주의, 능률주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다.<sup>17)</sup>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섬유산업이 국가경제의 전략사업이 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나이론과 폴리에스테일 등 화학섬유직물들이 국내에 공급되고, 섬유업체의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을 통해 각종 의료(衣料)를 개발, 생산하고 기계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직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장경제체제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의 정치적, 사회적 동요와 1970년대의 경제발전에 의해 축적된 생산기술은 한국 복식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sup>18)</sup> 복식을 착용하는 동기도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여성들이 직업적인 역할을 활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5.16 혁명정부는 신생활개선운동을 홍보하고

17) 김순심 : “우리나라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 복식, 16호, p.142.

18) 박찬부, 강혜원 : “한국복식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 1995, p.

여성개량한복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실용적이고 겸손한 재건복과 활동하기에 편리한 개량한복의 착용을 권장하였다. 이런 개량한복은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착용되었으나, 한복의 전통미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한복 개량운동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일상복으로는 양장을, 예복으로는 한복을 보편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 민족의 전통한복은 일상생활복으로는 거의 착용되지 않고 예복으로만 착용되는 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예복으로서의 전통한복은 일상생활복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담은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대량생산된 합성섬유는 가격이 싸고 손질이 편하여 의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특히 인조섬유의 개발은 의복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위한 밑걸음이 되었다.<sup>19)</sup> 또한 정부 각료의 해외순방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료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우

리나라는 아시아의 중요한 외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한복착용은 필수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복식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한복 양식은 상체는 작고 하체둔부선을 강조한 전통적인 향아리 형태에서 치마 밑부분이 부풀려진 삼각형 형태(A-line 형태)로 바뀌었으며, 예복으로서의 한복에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채가 사용되었다. <사진 8-A, B>는 1960년대 후반에 착용된 치마 저고리를 보여 준다. 이 사진들에서 보듯이 1965년도에 들어서면서 저고리 길이 등 각 부위가 줄어들었고, 1967년도 이후부터는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는 반면, 치마 길이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풍성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인조공단, 코오롱 양단, 테트론 등 합성섬유가 개발되어 실용적인 한복소재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 칠보단, 공주단, 대왕단, 선화단, 금실단, 유평, 무명, 옥양목, 레이스, 공단, 양단이 많이 사용되었다.



<사진 8> 1960년대 후반에 착용된 치마 저고리. (A) 소매와 저고리 길이는 짧아지고, 치마는 길어진 한복(『現代女性百科辭典』), (B) 꽃무늬를 수 놓은 치마 저고리(『新生活大百科辭典』).

19) 최경자 : “의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가정학회지, 3권, p.65, p.82.

한편 한복은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들고 예복으로 착용되는 경향이 증가되면서 치마 저고리에 문양을 장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기에는 장식이 적고 단순하였으나, <사진 8-B>에서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저고리의 깃, 고름, 끝등, 치마의 밑단 등에 장미, 국화, 목단 등의 꽃과 길상어문(吉祥語紋), 십장생문(十長生紋) 등을 금박이나 자수(刺繡)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한복의 장식화, 예복화는 가속되었고, 한복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게 위한 금박자수와 함께 플레어 스타일의 치마도 선보이게 되었으며,<sup>20)</sup> 이는 한복의 기본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재단법을 개발하여 현대감각에 맞도록 치마 저고리의 형태, 문양, 색채 등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전반의 여러 면에서 현대화, 전문화되었으며, 일상생활은 모든 면에서 더욱 복잡해졌다. 세계적으로 각 민족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정치적, 경제적 문제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민족복은 바로 세계의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영부인, 외교관과 관료들의 부인들이 한복을 많이 착용하고, 세계미인대회에서 한복이 최우수 민족의상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온세계에 우리나라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크게 과시하였으며, 직물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재단법이 개발되면서 전통한복의 양식이 고급화, 패션화되었다. 특히 한국 여성의 체형을 보완해 주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A-line형 재단법은 여성지나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새로운 재단방법에 의해 치마 폭수가 증가하고, 허리부분의 주름 잡는 상태에 따라 퍼지는 정도가 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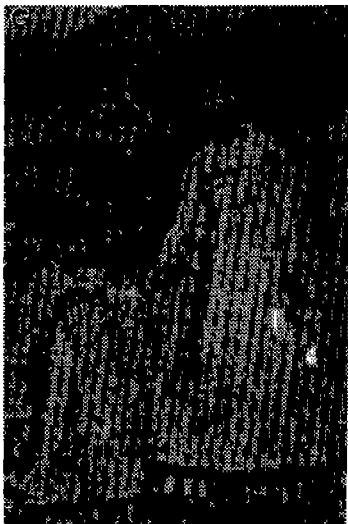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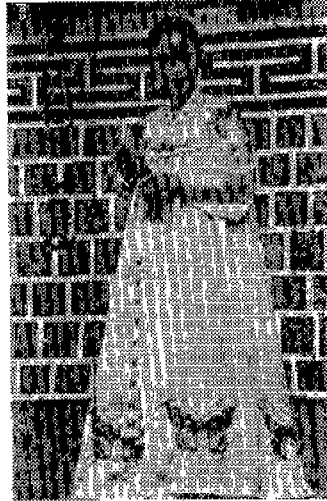
<사진 9-A~G>는 1970년대 초반에 디자인된 한복들을 보여 준다. 치마가 풍만해짐에 따라 저고리 길이는 점차 짧아지고, 치마는 길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저고리가 짧아진 것은 복식 양식의 기본원칙을 따른 것이다.<sup>21)</sup> 이와 같이 종래에 직사각형의 폭을 사용하던 치마가 윗부분을 잘라낸 A-line의 재단법으로 바뀌면서 <사진 9-A>에서 보듯이 치마 밑단의 부풀림을 보완해 주는 패티코트와 구두의 착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저고리 소매의 진동선을 없앤 프렌치 슬리브(French sleeve) 형태의 재단법이 개발되어 옷감의 문양을 맞추기 편리하고 어깨를 좁아 보이게 하였다. 따라서 개화기에 널리 착용되었던 긴 저고리와 짧은 통치마로 대표되는 개량한복의 경우 치마 저고리의 길이 변화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복식형태가 변화하였던 것에 비해, 1970년대 A-line 치마와 프렌치 슬리브 형태의 저고리로의 패턴변화, 그리고 패티코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속옷착용은 키가 작은 한국 여성들의 체형을 보완해 주어 착용시 아름다움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적인 복식형태면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티코트의 착용과 A-line 재단법의 개발과 함께 직물, 색채, 문양 등도 예전에 비해 장식하는 방법과 부위도 다양해졌다. <사진 9-B>는 다양해진 치마 저고리의 장식형태를 보여 주는 사진으로, 저고리의 장식은 부분적인 장식에서 양 어깨로, 그리고 치마의 장식은 치마단둘레, 도련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대담하고 화려한 수, 아플리케, 스팅글, 그림 등의 방법이 <사진 9-C>에서와 같이 일반한복에 응용되었으며, 나아가서 다채롭고 원색적인 무대복(<사진 9-D>)과 파티복(<사진 9-E>)도 등장하였다. 또한 전문 한복 디자이너의 출현과 섬유공업의 발달로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개발되고, 각종 무늬로 디자인된 날염 실코도 등장하여 한복은 더욱 고급화, 패션화되었다. 이런 요인들로 한복은 예복으로서의 착용이 증가하면서 가내

20) 유희경 : “한복과 액서사리”, 『여원』, 1962년 12월호, p.386.

21) 이경자 : “해방 36년의 복식 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486.



〈사진 9〉 제 3기(1966년~1975년)에 디자인된 한복. (A) 프렌치 슬리브 형태의 치마 저고리 (『주부생활』), (B) 어깨와 치마단을 수로 장식한 치마 저고리 (『주부생활』), (C) 스팅클로 장식된 치마 저고리 (『여원』), (D) A-line으로 재단된 무대복용 치마 저고리 (『코리아리포트』, 1975년 미스 유니버스 최우수상의상 수상), (E) 어깨 및 치마 전체에 꽃문양된 파티용 치마 저고리 (『여성동아』), (F) 개량된 반두루마기 (『여성중앙』), (G) 궁중보가 장식된 치마 저고리 (『주부생활』).

봉재수준에서 전문적인 맞춤한복으로 발전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맞춤한복집이 성행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복의 문양장식과 디자인의 개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복도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되었다. <사진 9-F>에서 볼 수 있듯이 깃을 없애고 남자 마고자의 neck-line을 변형시킨 짧은 두루마기가 개발되었고, 궁중복식의 보(補), 그림, 금박이 어깨나 치마단 등 한복 전체에 장식되기도 하였다(<사진 9-G>). 자연적인 문양과 인위적인 아(亞), 만(卍), 뇌문(雷紋) 문양, 그리고 길상의미를 지닌 글자인 수(壽), 복(福), 회(囍), 부(富), 귀(貴) 등의 문양들도 많이 사용되었으나,<sup>22)</sup> 이러한 장식문양들은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양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물로는 공단, 갑사, 양단, 유흥, 삼색양단, 모시, 본견주아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 3기, 즉 1966년~1975년 사이의 기간에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우리의 의생활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졌으며, 여성들은 일상생활복으로는 양장을, 그리고 예복으로는 전통한복을 시간, 장소, 용도에 적합하게 착용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 시기 한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상복이 아닌 예복으로서의 전통한복을 무엇보다도 한국여성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되어져야 하였으므로 한국여성의 체형을 보완해 주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단법, 즉 A-line 재단법이 전통한복에 채용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이나 문양, 장식 등이 시도된 예복으로서의 전통한복이 현대감각에 맞게, 또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착되었던 제 3기를 '전통한복의 정착기'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 4. 제4기(전통한복의 성숙기 : 1976년~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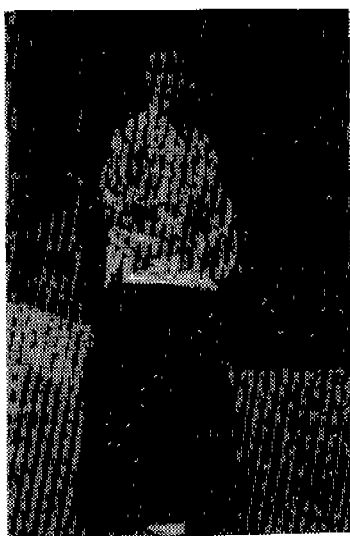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국제교류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 모드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으며, 금산에 통신위성지구국이 준공된<sup>23)</sup> 후에는 세계의 패션이 곧 우리의 패션으로 수용될 정도로 세계화되었다. 또한 양복이 많이 보급되면서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매스컴과 자주 열리는 패션쇼를 통해 올바른 양복착용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패션계도 활성화되었다. 대기업이 패션산업에 참여하면서 기성복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외국 상표의 수입과 표준화된 치수의 사용으로 기성복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자 서서히 기반을 닦아가던 기성복이 대량생산되었으며, 가격의 인하와 구매시간의 절약으로 패션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기성복의 정착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패션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경제의 성장에 따라 우리의 생활에까지 전파된 복식의 변화를 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구 모드의 동시적 수용, 패션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성복의 보급으로 인해 전통한복은 일상생활복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들고, 더욱 예복화되면서 장식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더우기 노년층에선 거의 착용되지 않았던 양복이 1970년대부터는 중년층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하면서 한복은 명절이나 관혼상제의 예복으로 많이 착용되었다. 따라서 1975년 이후 한복의 예복화현상으로 저고리는 더욱 짧아지고, 치마는 길이와 폭이 증가하여 부풀림이 확대됨으로써 1978년부터는 서양의복과

22) 이미혜 : "현대여성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전통복식요소",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15.

23) 1970년 6월 2일 개국, 1년 반만에 건설된 높이 35m, 직경 27cm의 거대한 안테나가 35,800km 상공의 통신위성 인텔젯 F-4와 마주 움직이며 세계 각국의 전파를 받아서 전달해 줌.

같은 치마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한복은 저고리의 깃, 고름, 밑동 등에만 제한되었던 장식이 어깨를 비롯한 옷 전체로 확대되어 자수, 금박, 보 형태, 문양, 수, 그림 등으로 장식되었고, 색동이 응용되었으며, <사진 10>에서 보듯이 기존의 두루마기와 다른 길이가 짧고 전체에 수가 놓여진 화려한 반두루마기가 개발되어 널리 유행하였다.



<사진 10> 제4기(1976년~1985년)에 디자인된 반두루마기. (『주부생활』)

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적인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복식도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가 시도되었다. 198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칼라 텔레비전의 방영은 패션계에 색채감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생활전반에 칼라화현상이 등장하여 양복과 한복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각종 패션쇼가 국내, 국외에서 잇따라 열려 한국의 패션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시기의 한복을 보면, 제3기에 비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폭은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졌으며, 웃고름

또한 길어졌다. 한복에 장식되는 문양으로는 식물문, 길상문, 기하문, 자연문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남자한복에도 금박이나 자수를 놓아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는 등 그 장식방법도 대단히 화려하고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4기, 즉 1976년~1985년의 기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통한복은 더욱 예복화되고, 금박이나 자수외에 그림, 염색 등의 장식방법이 개발되어 색채, 디자인, 직물 등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더우기 여성잡지의 증가와 한복 패션쇼의 잦은 개최로 일반여성들은 디자인된 한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전반적으로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과 미적인 감각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한복이 패션화되면서 전문한복집이 생기고 백화점에 기성한복코너가 상설되는 등 가내봉제수준에서 벗어나 맞춤복화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한복에 고급직물과 세련된 색채가 적용되고 패션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던 제4기를 '전통한복의 성숙기'라고 표현하였다.

##### 5. 제5기(전통한복의 안정기 : 1986년~1995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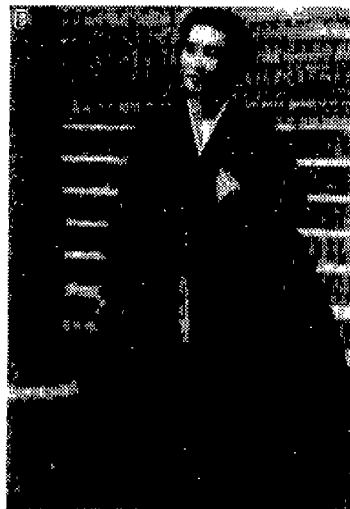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에는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환경속에서 획일화된 패션을 거부하고 인간제일주의로 바뀌어감에 따라 개성에 맞는 복식을 착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봉제기기의 현대화, 봉제가공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고급직물이 개발, 생산되어 국민들의 의생활도 풍요롭게 되었으며, 염료의 개발과 염색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문양의 출현으로 의복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직물산업의 발달은 고급직물의 생산은 물론, 한복의 디자인까지 보대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되어지게 하여 현대화된 생활과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일반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II 장 3절과 4절에서 서술하였듯이 전통한복이 예복으로서 착용되는 경향이 커져서 1970년대와 1980년대초까지는 여성들이 단순히 한복의 착용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한복에 금박, 자수, 그림, 나염 등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한복 특유의 단아하고 질박한 멋보다는 서구적인 스타일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6년대 중반부터는 한복전문지가 발간되면서 한복의 전통성, 즉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전통한복

의 단아한 멋을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애플리케, 조각잇기, 누비, 프린팅, 염색 등 새로운 방법이 전통한복에 적용되었으며, 화려한 색채보다는 침착하고 가라앉은 중간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사진 11-A~D〉는 이 시기에 많이 착용되었던 전통한복으로 다양해진 양식과 화려함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11-A〉는 치마 저고리를 반회장이나 삼회장 저고리로 배색하여 한복을 평상시에 착용하기 쉽도록 한 양식을 보여 준다. 치마의 실루엣면으로 보면, 부풀림과



〈사진 11〉 제5기(1986년~1995년)에 디자인된 치마 저고리. (A) 중간 색채를 사용한 반회장 치마 저고리 (『여성자신』), (B) 잿물림으로 장식한 치마 저고리 (『아름다운 우리옷』), (C)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치마 저고리 (『아름다운 우리옷』), (D) 덧저고리 (『퀵』).

폭이 다소 축소되었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직물과 바느질기법도 다시 사용되었는데, 이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치루어지면서 전통적인 요소가 강조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복 디자인도 복고적인 경향을 보여 이제까지 옷전체에 사용하였던 화려한 장식이 거의 없어졌으며, <사진 11-B>에서와 같이 잣물림으로 장식한 치마 저고리도 디자인되어 부분적인 색배합, 잣물림, 바이어스, 섀코짜기 등의 기법이 전통적인 한복에 사용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에 현대적인 감각의 문양, 즉 점, 선, 면을 이용한 추상무늬를 접목시킨 <사진 11-C>와 같은 한복도 나왔으며, 직물이 지닌 질감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선호되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한복의 멋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의 전통한복 양식 변화의 특징은 각 연령에 어울리는 전통적인 색채를 선택하고, 시간, 장소, 용도에 적합한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 선택에 대한 일반인들의 안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직물도 각 계절에 알맞는 일반적인 소재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노방, 명주, 자미사와 천연 섬유인 모시, 삼베, 무명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장식과 문양은 더욱 간소화되었다. 옛스러움을 강조하여 파스텔 계통의 색채와 겨자색, 자주색, 회색 등 중간색 계통의 배색이 즐겨 사용되었으며, 착용자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등 전통한복에 관한 관심이 일반여성에게까지 널리 확대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치마 저고리 이외에도 두루마기, 덧저고리(<사진 11-D>), 누비 저고리, 누비 두루마기 등도 다양하게 착용되었으며, 선, 색채, 바느질의 기법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감각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한복에 응용되었다. 이와 같이 1985년 이후에는 그 이전까지 유행하였던 화려한 장식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한복 형태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으로 치마형태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다. 즉, 1970년대의 과장되게 부풀려진 A-line형의 치마는 1980년 후반에는 치마의 폭이나 부피가 간소

화되어 유연하고 완만한 흐름을 갖는 선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전통한복의 전통적인 것으로의 복귀현상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복으로는 거의 착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개선된 새로운 개념의 '생활한복'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과거의 개량한복이 전통적인 선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량된 것과는 달리, 현대의 생활한복은 <사진 12>에서 보듯이 다양한 직물, 색채, 장식 등이 응용되고 현대감각에 맞추어 양복화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활한복은 편리하면서도 한국적인 멋을 표현해 준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국적이 없는 복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에서 벗어났다고해도 세계무대에 한국적인 선을 소개함으로써 세계속의 패션으로 자리 잡으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복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한복은 예복으로서 더욱 발전되고 성숙되어가는 전통한복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생활한복은 한복으로 보기



<사진 12> 제5기(1986년~1995년)에 현대감각에 맞추어 디자인된 생활한복. (『한국의 미』)

보다는 양복에 한국적인 복식요소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즉 제 5기는 화려한 아름다움보다는 우아한 멋이, 그리고 과장되게 부풀려진 A-line 형태보다는 유연한 선의 흐름이 강조된<sup>24)</sup> 시기였다. 이러한 전통한복의 변화는 예복으로서의 한복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나아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발전하였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전통한복은 바야흐로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5기를 ‘전통한복의 안정기’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현대에서 우리의 전통한복의 양식은 정착기, 성숙기, 안정기를 거치면서 예복으로서 또한 전통한복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전통한복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시대에 맞으면서도 전통미를 잃지 않는 한복의 양식을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과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내는 개가를 이루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우리의 민족복인 전통한복의 미를 재인식하였으며, 앞으로 시대적 감각에 맞으면서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 문양, 색채 등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새로운 의미의 생활한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Ⅲ.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여성의 전통복식이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그 변화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통복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화기 이후 한복이 개선되고 예복으로 정착되어 가는 현대한복의 변화과정을 시대적, 사회적 요인들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조선 말 개화기 이후 여성교육의 확대와 봉건적인 사회제도가 붕괴되면서 신여성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당시 일반여성들의 복식이 조선 말기의 기

본복식인 소매가 좁고 상체에 꼭 끼는 길이가 짧은 저고리와 치마의 볼륨을 강조하는 상박하후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통치마와 긴 저고리로 이루어진 개량한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여 근대 여성복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가장 길었던 저고리가 1950년대에 다시 가슴선까지 짧아지고, 깃길어도 함께 짧아져 목 밑에서 바짝 여며 입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소매 길어도 짧아지고 고름대신 단추나 부로우치로 여미기도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우리의 의생활은 풍요로워졌으며, 양장이 일상생활복으로 대중화되면서 전통한복은 일상복으로서의 기능이 줄어들고 예복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궁중예복인 원삼, 당의, 활옷 등이 일반인들의 혼례복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잊혀졌던 전통복식의 문화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예복화된 전통한복에 여성의 체형을 보완하고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A-line 재단법이 전통한복에 채용되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재단의 변혁은 국제사회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나, 수, 아플리케, 스팅클 등 다양하고 화려한 방법으로 장식됨에 따라 전통적인 미를 잃게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전통한복에 극단적으로 퍼지는 실루엣과 과잉된 장식이 점차 사라졌으며, 보다 단순하고 질박한 멋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전통적인 색채와 소재의 선택, 바이어스선, 잣물리기 등 전통적인 바느질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1960년대 이후의 현대 전통한복의 양식변화는 시기별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통한복이 예복으로서 정착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A-line 재단법이 전통한복에 적용되었던 1966년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를 전통한복의 정착기, 고급화된 직물과 풍부

한 색채 등으로 전통복식의 패션화가 이루어졌던 1976년부터 1985년까지를 전통한복의 성숙기, 전통적인 멋으로 되돌아 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던 1986년부터 1995년 현재까지를 전통한복의 안정기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여성 전통한복의 양식은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으며, 외국의 복식문화가 우리나라의 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복식문화가 융화되는 과정을 거쳐 각 시대의 복식 양식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한복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의 요인들로 근대에는 전통사회의 근대화, 서구문물의 유입, 구제도의 개편, 교육기회의 증가, 여성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현대에는 섬유산업 발달, 서양복식의 유입, 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형성, 칼라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전통한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현재에도 계속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복식문화를 재발견하고 우리 전통복식의 장점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서양문화 및 복식에 그대로 따르려는 무분별한 한복 디자인의 개발보다는 우리 한복이 지닌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최근 뚜렷해졌으며, 이에 따라 전통복식인 한복이 민족복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복식이 전통적인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전통복식이 바로 우리 옷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전통복식을 현대감각에 맞게 개량하여 일상복화, 활동복화함으로써 우리의 옷을 착용하는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은 세계미인 대회에서 최우수민속의상상을 수상함으로써 이미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

복식이 과거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잘 조화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전통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세계무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직물, 색채, 장식,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이들을 응용함으로써 현대적인 미적감각을 불어넣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한복의 개량을 위한 디자인의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도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한복의 선을 유지하면서 길이, 폭 등을 부분적으로만 변형시킨 것으로는 전통적인 한복의 멋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무리한 전통복식의 선이나 양식의 변형보다는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는 색채, 직물, 그리고 디자인을 개발함은 물론,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면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복식에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전통복식 디자이너, 산업체, 학교간의 산·학 협동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은 올바른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역사의 교육, 기본적인 디자인 교육은 물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통해 전통복식의 제작과정을 전수시켜야 하며, 전통복식 디자이너와 직물산업체는 공동협력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미를 살리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직물과 전통복식 양식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혜경 : “한복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6.
- 고복남 : 『한국전통복식사연구』, 일조각, 1986.
- 금기숙 :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김미자 : “개화기의 여자복식과 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8호, 1989.

- 김순심 : “우리나라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16호.
- 김연선 : “광복 이후의 여자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69년까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영삼 : 『정신 75년사』, 계문출판사, 1962.
- 남윤숙 :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박찬부, 강혜원 : “한국복식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 1995.
- 석주선 : 『의』,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 손경자 : “개화기의 여복”, 한국의 복식, 1982.
- 유수경 :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유수경 : 『한국여성양장변화사』, 일지사, 1990.
- 유희경 : “1303 아미타불 복장복식의 양식과 특성”, 온양민속박물관, 1990.
- 유희경 : 『한국복식문화사』, 1986.
- 유희경 :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이경자 : “해방 36년의 복식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 이경자 :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1983.
- 이광린 :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1969.
- 이미혜 : “현대여성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복식요소”,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송희 :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그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은창 :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 정세화 : “한국근대여성교육”, 『한국여성사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정충량 : 『이화 8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67.
- 차용희 : “일본 근대복식과 우리복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자 : “의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가정학회지, 3권.
- 최세완, 김인자 :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198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권, 1호, 1993.
- 한정미 : “국내패션쇼에 관한 실태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매일신보』 1938년 3월 8일, 1938년 7월 10일, 1939년 1월 24일, 1942년 6월 13일, 1943년 8월 19일, 1943년 8월 23일, 1944년 8월 16일.
- 『사진으로 보는 광복35년, 下』, 한국일보사, 1982.
- 『숙명75년사』, 숙명여자중·고등학교, 1976.
- 『여원』, “여대생들이 구상한 농어촌 개량복”, 1959년 2월.
- 『여원』, “한복과 액서사리”, 유희경, 1962년 12월.
- 『한국의 복식』, 백영자, 경춘사, 1993.
- 『한일친선패션쇼』, 1963년 5월 22일, 赤坂프린스호텔, 1963년 6월 8일, 서울시민회관.

## ABSTRACT

### A Study on the Style Change of Kore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Hwang Eui Sook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style change of the Kore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and analyzing its character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hanges during the period from the civilization in 1884 to the present. The design of the traditional costume which might be formed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had been slowly modified, and the Korean jacket and

skirt design was settled in the Chosun period. In the end of the Chosun period, the drastic social changes such as civilization and revolution,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dresses, affected strongly the traditional costume design. This led to a change from the old dress design to the stylish and practical one because civilized women and high school girls wore the modified costume composed of long jacket and short skirt or western style dresses. In recent years after 1960's, Korean women usually wore traditional costumes as ceremonial dresses because the western style dresses replaced the traditional costume in everyday life. After 1970's, however, the A-line silhouette, combined with ornaments, adapted to the traditional costume in order to emphasize women's beauty, thereby resulting in remarkable modification in the traditional costume. In those days, the large pro-

duction of various textiles such as nylon and tetron and the appearance of the traditional costume design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beautiful traditional costume designs and bringing closer together with general public women. These recent design changes might be classified generally by the following three stages : (1) "the period of settlement" (1965 1975), (2) "the period of maturity" (1976 1985), and (3) "the period of stabilization" (1986 1995). The costume design of each period was discussed and compared in detail according to historical events. From this study, inherent beauty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can be recognized again, and clarified its position as our folkdress. It is also suggested that in future its modification should be achieved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tradition and modern sense.